

# 강임준 군산시장 예산활동 올인

## 기재부 실무담당부터 국장까지 잇단 만남, 현안 국비지원 당위성 피력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실국 활동에 연일 분주하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 방문에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요구에 나섰다.

이번 방문활동은 강시장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실무부서를 방문해 주요사업 건의활동에 이은 후속 조치로, 국가예산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안도걸 예산실장과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경제부처 예산책임자인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면담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 시장은 최근 정부3차 추경

예산에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이 확보된 상황과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사업이 과기부 기술성평가 통과로 예타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된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군산지역에 4GW 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이 추진되고 연구시설 실증센터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연계 신규사업 국비지원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주 및 태양광 셀비 제작 등 주문이 이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경기부양과 연관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개의 연계 사업 ▲군산항 7부두 아적장 조성사업(총사업비 441억원)과 ▲조선해양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총사업비 250억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지원시 국내 최대규모 재생에너지 플러스터 조성은 물론 상생형 일자리와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어서 군산형일자리 창업모델인 ▲혁신제조 창업팩토리 구축사업(총사업비 30억원)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혁신제조 창업팩토리 구축사업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폐공장을 리모델링하여 공유공간형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산업부의 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지원 예산으로 89억원을 기화보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1200평 규모의 임대공장을 조성후 내년부터 10여개 스타트업 기업을 입주시켜 소재·부품·장비 제조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고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가의 공동활용장비 구입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거듭 요청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요구에 나섰다.

## 군산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첫 삽'

군산시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시설 기공을 시작하며 모두가 살아가는 경제도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군산시는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 12월 준공을 목표로 9일 개정동 현장에서 부자축복식과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천주교전주

교구 김선대 주교의 부자축복기도와 인사발씀을 시작으로 시설설치 경과보고 성토식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신변자립과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능을 개인상태에 맞게 습득시키기 위해 개별훈련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설이 개관하게 되면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기술을 배우길 원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공식 자리에는 함께 한 김창환 주민생활국장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 관계자에게 감사의 전한다"면서 "우리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일터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 4번째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전원 '격리해제'

익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4번째(전북26번째) 환자의 접촉자 전원에게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됐다.

시는 4번째(전북26번째) 환자의 나머지 접촉자 6명에 대해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

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55명 격리해제를 시작으로 순차 해제되어, 9일 낮 12시 기준 최종 6명까지 접촉자 95명 전원이 자가격리가 해제되었다.

시는 접촉자로 분류됐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13일째 반드시 한 번 더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격리를 해제시킴으로써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있다.

앞서 시는 4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5일까지 팔봉동 공설운동장과 보건소 등 2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환자와 연관성 있는 시민 504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함내자! 익산기업 상생특별보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익산시 · 신보 · 기보 '맞손'

### 관내 기업 상생 특별보증 협약... 융자금 보증료 지원 등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함내자! 익산기업 상생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윤재민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 및 성장 기반 마련에 상호 합의했다.

익산기업 상생 특별보증 사업은 도내 지자체 중 익산시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의 융자 실행에 필요한 보증료를 연간 0.5%(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익산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익산시는 최대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이는 최대 1천억원의 융자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시는 기업당 3%~4.5%의 이자를 지원하던 기존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

금융자 지원 사업의 융자금액을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증대했고 2020년 상반기 융자금의 만기를 6개월 연장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개선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우리 기관도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윤재민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익산시가 발벗고 나서는 점이 고무적이고 위기 극복 노력의 성과가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기관도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기업 상생 특별보증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유재구 익산시의장, 연일 현장 중심 '소통행보'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후반기 의장 당선 후 연일 지역 내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보'를 펼쳤다. 유재구 의장은 지난 7월 9일 익산경찰서 방문을 시작으로,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광대학교, 7일 익산교육지원청, 금강방송 등의 유관기관을 찾아 기관별 주요 현안 및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번 기관 방문은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시작과 의정활동의 방향을 알

리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재구 의장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 고용위기 지원센터 맞춤형 일자리 매칭데이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업 맞춤형 일자리매칭데이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현장면접 채용행사인 기업 맞춤형 일자리 매칭데이를 오는 16일, 17일 양일간 군산 에이브컨벤션 세미나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기업 맞춤형 일자리 매칭데이는 (주)풍림퍼펙트, (주)유먼컴퍼지트, (주)웅우컴퓨터이탈, 키움이동병원 4개의 업체가 참여해 사무직, 생산직, 기술직, 간호사, 조리사 등 분야별로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unsha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 (063-450-130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군산시 목표치 99% 달성

군산시가 실천 중인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상반기에 만 한 해 목표 99%를 달성하며 더불어 쾌적한 도시를 향해 달리고 있다.

군산시는 10년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2년 차인 올해 상반기 60만 9천 그루를 식재하며 한해 목표치인 61만 그루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에는 목표치인 37만 5천 그루를 뛰어넘는 48만 그루를 식재해 목표대비 128%를 달성했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08만 9천 그루를 식재해 전체 500만 그루 목표대비 21.78%를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내 4개소에 미세먼지 차단 숲, 월명터널 위 도시숲 조성 등 공공분야 10개 사업 102ha에 37만7,000본과 민간 개발사업, 시민현수로 이루어진 민간 부분에서 23만 2천 그루를 식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